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105

JCCT 2022-5-13

고등학교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 보건 교과목 고등학생의 참여경험

Effects and Challenges of Cluster Curriculum of Gyeonggi-do Province in Korea: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Experience in Health

양혜경*

Hye Kyung Yang*

요약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경쟁적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본 좋은 상상을 하게 됨'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해 진로의 방향설정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수업운영 및 실습을 포함한 보건의료의 세부전공에 대한 교과내용의 보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성과 및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클러스터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건, 성과, 질적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cluster curriculum through the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study, topics such as "Best Choice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Change in Health Perception," "Desire to Experience Various Health Worlds," "Limits in Non-regular Curriculum Operation," and "Feel Good Imagination"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uster curriculum changed their perception of health positively, and confidence in career sett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was improved through acquiring information on health care. However, supplementing the curriculum content in the specialized fields of health care, including classes and practice, was found to be a task to be improved.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lternatives for career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by sharing the achievements and tasks raised in this study.

Key words : Cluster Curriculum, High School, Health, Effects, Qualitative Stud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창의 등 지식탐구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교육환경에서도 교육과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1]. 고교 대학입시 제도에서도 정시모집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시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희원, 단국대학교 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3월 27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9일

Received: March 27, 2022 / Revised: April 24, 2022
Accepted: April 29, 2022
*Corresponding Author: joabada12@naver.com
Dept. of Nursing, Dankook Univ, Korea

기존의 양적평가 패러다임에서 질적평가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질적으로 살펴 보고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준비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 전략의 요구가 더 강조되었다[2]. 교육부는 2009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유학기제, 체험교육 등을 도입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에 앞서 2012년부터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도입하였다[3].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며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강화한 제도이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지역의 학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지원하는 공동교육 형식의 선택형 교육체제이다[3].

공교육 환경에서는 다양한 욕구와 개인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교육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다양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폭을 넓혀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4].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들은 소수 학생의 선택으로 일 학교에서는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목이나 전공교사가 없어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진로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선택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다[3].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한 학교는 197개 학교에서 280개 과목으로 참여하여 4,666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3]. 이 제도는 방과 후 활동과 달리 정규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어 성적을 산출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학생이 선택과 함께 책임을 가지고 이수해야 한다[3].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진반에 의료인력의 확충 요구와 의료인의 헌신적 모습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고, 높은 취업률 등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대학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5]. 이에 경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보건 또는 보건간호, 간호의 기초, 공중보건 등 유사한 교과목 명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2012년 신설 후 그간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자유학기제 시행 원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비교과 과목의 경험이 기존의 단순한 체험 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학교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습경험으로 기능하였는가에 대한 참여학생들의 반응 및 인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체육교과에서 참여 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7]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보건간호 클러스터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과목으로 생명보호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일반적인 정규 교과목에서 학습해 볼 수 없는 질병 및 인체에 대한 이해, 간호실습 및 실기 등 수업의 특수성이 있다. 교육과정의 경험이나 참여자의 변화를 측정 가능한 결과로 산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건처럼 전문 과목의 경우는 교과목 자체가 개별적으로 고유의 속성이 있고, 적합한 대조군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실험적 접근만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도 참여 동기나 흥미, 관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의 조사도구를 이용하는 양적연구방법으로는 역동적인 참여자의 인식 및 교육현장의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느끼고 경험한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참여학생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 이것은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교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었고, 학습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학습을 권장 하였듯, 교육의 평가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민주적 교육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유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건 교과목의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여 보건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 교과목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를 통해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G고등학교, B여자고등학교, D고등학교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서 1년간 보건 교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등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질문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건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자가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에 참여하셨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교육과정을 통해 느낀 변화는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에서 아쉽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의 순으로 일반적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하였고,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의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지역의 3개 고등학교에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22일까지 총 6회의 포커스 그룹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계획하기 위하여 보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에 허가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클러스터 운영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방법, 참여의 자율 및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터뷰 날짜와 시간, 장소 등 참여자와 일정을 함께 협의하였고, 한 그룹 당 12~13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그룹당 3회의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매회 6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장소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방과 후 일정을 고려하여 매회 시간과 일정을 참여자들의 사정에 따라 조정

하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참여의 자율적인 동의를 구하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중에 대화의 녹음됨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에 동의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인터뷰 자료는 Braun & Clarke(2006) [8]의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녹음된 내용 전체를 그대로 필사한 후 여러번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느낌과 경험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핵심이 되는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참여자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의미 있는 개념의 단어나 문장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분류하여 주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도출된 연구 주제 및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타당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11명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6. 연구의 질 평가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9]의 엄밀성 검증을 위한 네 가지 평가기준으로 적용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실적 가치를 위해 참여자의 언어나 의미 있는 표정, 몸짓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술된 주제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Braun & Clarke(2006)[8]의 귀납적 분석방법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위해 인터뷰의 전 과정에서 현장기록을 하였고, 기록 및 현장 녹음을 통한 의미를 파악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헬싱키 선언의 윤리원칙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자율적인 연구 참여 보장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의 철회가능과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1명으로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이었고, 남학생 7명, 여학생 34명이었다. 지원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응급구조학과와 물리치료학과가 각각 2명이었고, 의예과, 한의학과, 약학과가 각각 1명, 간호학과가 34명이었다.

2.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경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41명의 참여자를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참여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12개의 개념, 5개의 하위주제,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4개의 범주는 지원동기, 교과내용의 학습, 교육과정 운영, 전이 이고, 5개의 하위주제는 경쟁적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됨으로 도출되었다.

1) 경쟁적 환경에서의 최선의 선택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지원한 동기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시전형에 유리한 이력을 위해 지원하였다고 하였고, 친구들의 이런 행보에 자신들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 오직 진학, 진학을 위한 수단

“수시나 학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필요한데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게 이거예요. 수시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상은 쉽지 않고, 동아리나 봉사활동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대학입시와 상관없이 이걸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걸요. 그런 학생이 있나요(반문하듯)?”

(2) 네가 하면, 나도! 일단 해놓고 보기

“저는 아직 어느 대학을 갈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간호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아영이(가명)가 한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냥 음..그냥 한번 따라서 같이 해봤어요(웃음).”

“저는 농대를 갈거예요. 나는 그런게 좋아요(모두 웃음). 근데 학교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나도 뭘가는 해야겠고...이 친구가(옆 친구를 가리키며)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그래서 왔어요.”

“사실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몰랐어요. 이것저것 준비는 해야겠고, 그냥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왔어요.”

2)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건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선입견과 보건은 병원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1) 힘들고 험한 일에 대한 갈등

“엄마는 내가 몸이 약해서 너 같은 애는 간호학과에 못 간다고 했어요. 사실 피를 보면 어지럽고 심장이 막 떨리고 그래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또 막 간호학과에 가고 싶고 그런거예요...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간호사들 태움이 너무 무서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의사 보조라는 생각도 있고...엄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거 하라고 하는데...근데 취직도 잘되고, 어느때는 멋져 보이기도 하고,,아...잘 모르겠어요”

(2) 다양한 직업에 눈뜨다

“아빠가 그냥 대학 나와서 공무원 하라고 하는데, 간호학과를 나와도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일단 병원에서 한 번 일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은데, 소방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응급구조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하고 싶은 욕구

학생들은 보건실의 보건교사로부터 받았던 보건수업과 비슷한 수준의 보건교육은 흥미 없어 하였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제 행해지는 직업인으로서의 간접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1) 진짜 의료인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

“저는 보건선생님이 맨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서 금연 만화 보여주고, 실습해봤자 맨날 봉대 매는거나 하고, 똑같은 수업하는게 좀 지겨웠어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하는거요, 진짜처럼 해보고 싶어요”

“실습만 했으면 좋겠어요. 실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호사처럼 해보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4)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수능공부와 함께 병행하면서 모듈활동 준비들이 과제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만 듣고 바로 가게 되니 클래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없다고 하였고, 친구들의 학교가 저마다 다른곳에서 모이다 보니 학교 사정이나 이동거리에 따라 지각하는 학생이 빈번하여 수업 집중이 어렵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이 자율적인 지원과 달리 필요시 클래스를 탈퇴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였고,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다수라서 다른 보건계열 학과에 대한 정보나 수업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진술하였다.

(1) 발표 준비와 수행평가의 부담

“학교 수업도 해야하고, 숙제도 해야하고, 학원도 가야하는데, 발표과제를 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발표과제 준비할때마다 수능공부 해야하는데 이런거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불안감 모 그런게...솔직히 그랬어요”

“발표준비가 숙제잖아요.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하고...저는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해야 해서 부담 됐어요.”

(2)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친구들

“저는 조별 활동에서 은지(가명)랑 많이 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야해서 친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같이 1년을 지냈는데 같은 학교 아니면 이름도 몰라요. 대충 서로 학교는 알겠는데...(웃음).”

(3) 야간 또는 주중에만 시행되는 수업의 한계

“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좀 이런거 저런거 해보고 그런게

하고 싶었어요. 의료진들이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보고 그런게 하고 싶었어요.”

(4) 통제 및 관리가 될 수 없는 수업환경

“수업 듣는데 자꾸 지각하는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니 집중도 잘 안되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조별활동하다가도 지각한 친구들이 오면 다시 해야 하고...”

“저는 클러스터 등록만 하고 수업에 오지 않는 미순(가명)이가 계속 결석으로 되는거 보고(중략)..., 그래서 나도 사실 중간에 관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했어요.”

(5) 보건학 및 간호학 중심 강의 편성의 아쉬움

“저는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은데 실습이나 그런게 거의 간호학과 내용이 많았던거 같아서, 물리치료 실습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게 좀 아니어서...”

“저는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택처럼 신약 개발이나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약물성분실험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거의 간호학과에 대한 실습이나 수업 같아서..”

5) 기본좋은 상상을 하게 됨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할때에 비해 보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어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자신에게 뿌듯하다고 하였다.

(1) 현장에 나를 투영해 보다

“저는 실습 할 때면 내가 간호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간호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가고 싶어요.”

“저는 간호학과 대학 선배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학생이 되는 상상을 해봤어요.”

(2) 교육이수를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저는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는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오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 내가 뭔가를 했구나. 하나를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응급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걸

보고 이젠 잘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했다 이렇게 보람이 되고 정말 나를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요 ”

“저는 간호학과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생겼고, 꼭 가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웃음). 우리 아빠도 내가 간호사를 할거라고 하니깐 잘했다고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목표도 생기고(중략)...”

IV.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고자,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 접근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경험은 5개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범주별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과과정 운영목적에 비해 실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목적은 차이가 있었다. 클러스터 교육 과정 운영의 본질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풍부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중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3]. 그러나 참여 학생들의 대부분은 진학을 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이력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Jo[6]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맞춤형 교육이기는 하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학생들은 전문분야의 학습경험과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유일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자들은 간호사 및 보건분야에 대해 편견과 정보부족이 있었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교육, 건강관리 등을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다. Ru[10]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힘든 직업이고,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의 업무현장과 지식의 전문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래 보건의료인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10].

셋째, 참여 학생들은 교과 실습을 하면서 현장의 의료인처럼 체험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실습 만족도는 전문직 진로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실습이 교과과정에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An 등[11]의 보고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습시설이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표 1.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경험의 의미

Table 1. The Meaning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Category	Subject	Concepts
Motive of participation	Best Choice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 It's only a means to go to college · If you do, I'll be ready too.
Curriculum learning	Change in Health Perception	· Conflicts about hard work. · Know various jobs.
	Desire to Experience Various Health Worlds	· I want to do it like a medical practitioner.
Curriculum operation	Limits in Non-regular Curriculum Operation	· The burden of homework and exams. · Friends that I can't get close to each other. · The limitations of classes that only take place at night · A class environment that can't be controlled. · Classes centered on health and nursing.
Learning transfer	Feel Good Imagination	· Reflect on me on the scene. · Accomplishment and confidence through education

미치고, 타 과목에 비해 전공실습과목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물리치료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접 치료 실습을 한 경우 또는 전문적인 지도 프로그램을 갖춘 실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12].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초중고교에서 1개 학년이상 17차시 이상의 “보건”과목을 통해 보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13]. 그러나 해당과목에서는 학생의 심폐소생술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함양이 주목적이고[14],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보건과목에서는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보건의료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따라서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욕구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직업체험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실습 편성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운영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발표 등 모둠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가 과제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은 가능한 수업시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나, 사실상 자료검색 및 수집을 위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간이 방과 후 야간수업으로 시행되어 외부기관 견학이나 방문수업의 아쉬움을 진술하였는데 클러스터 운영 매뉴얼[3]에 의하면 필요시 주말시간 활용을 권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말에는 공공 기관의 휴무가 다수라는 점에서 수업시간 측면에서 유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인근 지역의 근거리 학교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정된 학교에 모여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종료 후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지각이 빈발하고, 교육과정 등록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가 불가하여 교육기간 동안 결석으로 처리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등록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강철회 기간을 부여하고[15]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보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망하는 보건의료계열의 진로방향은 간호학을 비롯하여 의학, 약학, 보건학, 응급구조학, 물리치료학 등 매우 다양하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보건의료 계열의 분야이지만 각 전공별 특성이 매우 뚜렷하여 각 분야에 따라 교육내용 및 실습에도 차이가 있으며, “보건”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교육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특수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6].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17]. 각 전공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역량이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전문 직업교육이 아니므로 세부 전공의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전공분야의 특수성과 진로에 대한 정보는 교육과정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며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의 활동은 대학진학을 위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교육의 성과는 학습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피교육자가 규정된 과정을 이수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판단된다[19].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아직 매우 부족하여, 개별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으나, 미래 보건의료계열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 및 교육 욕구충족을 위해 커리큘럼 마련을 위한 평가 및 논의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경쟁적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의료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됨’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해 진로의 방향설정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수업 운영 측면과 실습을 포함한 보건의료의 세부전공에 대한 교과내용의 보완은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보건 교과목에 한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였으므로 클러스터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보건 영역에서 간호 또는 보건외에 다양한 세부 분야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지 못하여 보건교육과정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성과 및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직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효과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교육과정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 학생, 교사, 운영자의 측면에서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성과 및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C. H. Lee, H. H. Jeon. "Exploring digital capabilit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20(14). 311-338. 2020.
- [2] G. H. Lee, H. R. Jeon, Y. J. Choi.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College Admission Typ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omparison between General Admission and Comprehensive School Report Polic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8(3). 77-106. 2017.
- [3] D. H. Choi, Y. S. Kwon, H. J. Jeong et al. "2019 Curriculum Cluster Operation Teacher's Business Manual". Curriculum support department.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8.
- [4] I. S. Lee. "A qualitative study on paradoxes in implementing the career and admission policies for general high schools : Based on the theory of policy of Deborah Stone". *J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5). 51-84. 2017.
- [5] H. N. Choi, E. G. Oh, J. Y. Lee. "The Image of Nurses in Newspaper Articles during COVID-19 Era". *JKCA*. 21(11). 626-637. 2021.
- [6] G. B. Jo. The Explor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s through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Cluster as Student-Centered Curriculum. *Educational research*. 73. 151-167. 2018. DOI : 10.17253/swueri.2018.73.008
- [7] G. B. Jo, B. B. Gi, H. J. Lee. "A Self-Study on the Physical Education Teaching Experiences of Student-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77. 75-95. 2020.
- [8] Braun, V.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0, pp. 77-101. 2006.
- [9] Lincoln, Y. Guba, E.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1985.
- [10] S. Y. Ru. "How is the nurse image perception?: Comparison between major and non-major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53-361. 2014.
- [11] E. K. An, G. H. Choi. "A comparative study on the tourism education Satisfaction of Tourism in Vocational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Focusing on High School Tourism". *Hotel Tourism Research*. 10(1). 21-29. 2008.
- [12] S. Y. Kim et al. An Investigation of Factors Which Influence Physical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KAUTPT*. 11(3). 71-84. 2004.
- [1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school Health Act. Student Health Management No. 9.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22. <https://www.law.go.kr>
- [14] H. K. Kim, S. D. Oh. "Future directions of school healt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in Korea".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4(4). 217-228. 2007.
- [15] S. Y. Lee, H. S. Yong.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Web-based Virtual University System." *J of the Korean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6(12). 3577-3588. 1999.
- [16] B. R. Jo. "A Study on CQI Form for Quality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lass." *J of Digital Convergence*, 18(5), 115-125. 2020.
- [17] S. E. Moon, Y. J. Kim, Kim S. Y. Kim. "Current condi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lass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a". *J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6). 961-966. 2014. DOI: org/10.13065/jksdh.2014.14.06.961.
- [18] S. M. Park, I. S. Park, H. Kim, K. D. Kim, T. S. Lee. "Global Environment and Curriculum Challenges: Korea Introduction and operation status analysis of the university course elective system". *Korea Academy of Elementary Education Conference*. 381-395. 2008.
- [19] Davis MH, Amin Z, Grande JP, O'Neill AE, Pawlina W, Viggiano TR, et al. "Case studies in outcome-based education". *Med Teach*. 29(7): 717-722. 2007. DOI: org/10.1080/01421590701691429.